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 KDB산업은행
	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배포	2016.5.20(금)	
책 임 자	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장 김 선 문 (02-2156-9881)		담 당 자	이 은 진 사무관 (02-2156-9827)	
	산업은행 구조조정 부문장 정 용 석 (02-787-6013)			이 종 철 실장 (02-787-3951)	

제 목 :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추진관련

- 현재 4개 컨테이너선사 단체협상(5.18일) 이후 개별선사를 대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,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현대상선, 산업은행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
-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므로 물리적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
 - 그러나, 협상을 마냥 지체하여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는 없으며,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종결하여 결론을 낼 것임
- 협상 전망과 관련해선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있으며,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음
- 용선료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대상선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며, 그런 의미에서 용선료 협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

- 다만 용선료 협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되, 협상이 실패하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는 상황은 변함없음
- 기업을 정상화 시키는 것은 결국 이해관계인들의 손실 분담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며,
- 용선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나가는 것은 해운사 정상화의 필수 과제인 만큼 선사의 이해와 협조를 기대함
- 현대상선 경영정상화의 중요한 관문인 용선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추측성 보도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커다란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,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